

【연구논문】

신라시기 부산지역의 해양교류와 형변

선 석 열\*

목 차

- I. 머리말
- II. 신라 형변의 위치와 성립 시기
  - 1. 형변의 위치
  - 2. 형변의 성립 시기
- III. 신라의 해양교류와 형변
  - 1. 대중 해양교류와 형변
  - 2. 대일 해양교류와 형변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의 해양교류에 대해 부산 형변(兄邊)과 연관지어 추구한 것이다. 첫째, 형변의 위치에 대해서이다. 형변은 사해 중의 하나이다. 기록에는 망미동의 고읍성의 남쪽 해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곳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백산 일대로 비정하였다. 둘째, 사해가 성립된 시기는 전담부서인 전사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712년 직후에 사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성덕왕 때에 대중·대일의 해양교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도 부합되었다. 셋째, 신라의 해양교류는 그 대상이 일본과 중국의 당이었다. 신라의 왕도인 경주에서 출발하여 해양을 통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형변이었다. 부산의 형변은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이었으므로,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먼저 신라와 당의 해양교류 루트는 북로와 남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로는 왕도인 경주-울산항-부산 형변-남해안-서남해안-서해남부-중국의 항로였다. 이 루트는 일본의 견당사도 신라의 협조를 받아

---

\* 부산대학교 사학과

중국으로 가기도 하였다. 다음 신라의 대외 교통로는 경주-울산-기장-형변-쓰시마-이키-하카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이용되었다. 이후의 항로는 한려수도와 같이 안전한 세토나이카이를 따라 긴키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라는 해양교류를 통해 당과 일본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과 문물교류를 행하였다.

\* 핵심주제어 : 신라, 중사, 형변, 동남해, 해양교류, 해신제사, 안전항해

## I. 머리말

역사적으로 볼 때 부산은 해양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음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본고에서 다룰 신라시기의 해양교류는 초기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통해 이루어지다가 550년대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 황해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양교류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 부산지역은 신라의 해양교류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해양교류의 안전을 위해 해신에 대한 제사도 행해졌는데, 신라의 제사제도 가운데 중사(中祀)의 하나인 사해(四海)가 그것이다. 원래 해양교류는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있어왔으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외경의 대상인 해신에 대해 제사도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원시적인 해양제사는 소국단계에서 보다 발전하였고, 신라는 이들 제사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던 것이다.

부산지역에는 신라시기의 중사 가운데 사해 제사 중의 형변이라는 제장(祭場)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도 모등변신사(毛等邊神祠)가 있었다. 형변에 대한 연구는 신라시기의 사해에 대한 해양신앙을 추구하는 논고가<sup>1)</sup> 있을 뿐이므로, 부산지역의 형변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류의

---

1) 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韓國古代史研究』, 한국고대사학회, 2007.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라시기 부산지역의 형변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형변의 위치와 성립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기존의 연구에서 관련 기록과 같이 형변은 막연히 부산의 남쪽해안에 위치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비정하지 않아 지리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형변을 포함하는 사해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신라 때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중사와 비교하여 추구하고자 한다.

둘째, 형변을 통한 해양교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라는 해양교류를 전개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가 일본과 중국의 땅이며, 왕도에서 출발하여 해양을 통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인 부산 형변이었다. 신라시기의 형변을 통한 해양교류에 대해 대중교류와 대일 교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신라시기 해양교류 상에서 부산 형변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추구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선학들의 질정을 바란다.

## II. 신라 형변의 위치와 성립 시기

### 1. 형변의 위치

『삼국사기』의 제사지에 의하면, 신라의 제사제도는 명산대천을 제사하는 것으로 대사·중사·소사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중사는 오악, 사진, 사해, 사독과 표제명이 없는 제장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다룰 형변은 사해에 속하는 것이다. 형변과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1 四海는 동쪽으로는 阿等邊[세주 : 혹은 近烏兄(只)<sup>2)</sup>邊이라 하는

2) ‘斤烏兄邊’의 ‘兄’자는 ‘只’의 잘못된 듯하므로(李丙燾, 『국역 삼국사기』 하

데, 퇴화군이다.]이고, 남쪽으로는 兄邊[세주 : 거칠산군이다.]이고, 서쪽으로는 未陵邊[세주 : 시산군이다.]이고, 북쪽으로는 非禮山[세주 : 실직군이다.]이다.<sup>3)</sup>

(가)-2 兄邊部曲은 東萊縣의 남쪽 해안에 있다. 신라는 이곳에서 南海神을 제사지냈으며 [삼국사기]의 中祀에 실려 있다.<sup>4)</sup>

(가)-3 毛等邊神祠는 東平縣 남쪽 1리에 있다.<sup>5)</sup>

(가)-1의 기록에 보이듯이 사해는 네 방향의 바다에 대한 국가제사이다. 여기서 사해의 제사 장소를 모두 ‘邊’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경이라는 말 그대로 동서남북 네 방향의 땅 끝부분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제사 지내던 곳을 지칭한다.

동쪽 바다 방향의 아등변은 근오지변이라고도 하는데, 퇴화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퇴화군 즉 757년(경덕왕 16)에 개명한 의창군의 영현 임정현의 옛 지명인 ‘斤烏支’<sup>6)</sup>와 상통하므로, 영일군 즉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비정된다.<sup>7)</sup> 서쪽 바다 방향의 미릉변은 시산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산군은 757년(경덕왕 16)에 개명된 임피군의 옛 지명이다.<sup>8)</sup> 즉 시산군은 현재의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이다.<sup>9)</sup> 그리고 북쪽 바다 방향의 비례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근거하여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낸다는 두타산사와 일명 대천왕사라고도 하는 근산사가 있다고 하는데,<sup>10)</sup> 비례산

---

(개정판), 을유문화사, 1997, 127쪽. 주31), 근오지변으로 읽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3) 『삼국사기』 권32, 제사지 중사조.

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慶尙道 東萊縣 古跡條.

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慶尙道 東萊縣 祠廟條.

6) 『삼국사기』 권34, 지리지1 양주 의창군조.

7) 金昌謙, 『앞의 논문』, 2007, 164쪽.

8) 『삼국사기』 권36, 지리지3.

9)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5쪽. 주65 ; 金昌謙, 『앞의 논문』, 1997, 167쪽.

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條.

은 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며 해안으로부터 가까운 강원도 삼척시 근산동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sup>11)</sup> 바다에 가깝고 신라시대의 유적이 존재한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에 위치한 오화리산성으로 비정된다.<sup>12)</sup>

사해 가운데 동서북 세 곳의 입지조건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좋은 해변의 산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 위치한 (가)-2의 형변이 부산시의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가)-3에 보이는 고려시대의 모등변신사와 대조하는 견해가 있어<sup>13)</sup>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가)-3의 기록에 의하면, 모등변신사의 위치가 동평현 남쪽 1리에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같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래현 산천조에 의하면, 모등변신사가 있던 모등변도는 동평현 남쪽 15리에 있다.<sup>14)</sup> 고하여 두 기록에서 위치에 대해 차이가 많으므로 의문이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모등변도는 절영도 즉 영도와 함께 동래부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sup>15)</sup> (가)-3의 기록 즉 모등변신사 위치 기록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신라 사해 중의 하나인 형변은 (가)-1의 『삼국사기』에서 동래군에 있다고만 하였음에 비해 (가)-2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래현의 남쪽 해안에 있다고 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형변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모등변신사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임을 알 수 있으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11) 정구복 외, 『앞의 책』, 1997, 25쪽.

12) 홍영호, 『실직의 고고자료와 신라사적 의미』, 『이사부와 동해』 9, 한국이사부학회, 2015.

13) 정구복 외, 『앞의 책』, 1997, 25쪽.

1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慶尙道 東萊縣 山川條 “毛等邊島 東平縣南十五里.”

15) 『輿地圖書』 下(韓國史料叢書 제20집, <http://db.history.go.kr>), 慶尙道 東萊鎮 東萊都護府 山川條 “絶影島在[東萊]府南三十里 中략 古智島在府南三十里 毛等邊島 在府南三十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이 있는 형변부곡의 경우에도 (가)-2에서 보듯이 동래현의 남쪽 해안에 있다고 하였을 뿐, 그곳이 동래현과 얼마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

이제 형변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가)-2 기록에 형변의 위치를 비정하는 기준을 동래현이라고 하였는데, 동래현의 읍성을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가)-4 古邑城은 海雲浦에 있는데 동남은 石築이고, 서북은 土築인데, 둘레가 4,130척이며 지금은 허물어졌다.<sup>16)</sup>

(가)-5 海雲浦는 [東萊]府의 남쪽 9리에 있는데, 곧 [慶尙左]水營이 진을 옮긴 곳이다. 水軍萬戶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sup>17)</sup>

여기서 먼저 해운포의 위치를 비정해야 할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백나무 등이 울창한 해운대는 동래현 동쪽 18리에 있다.<sup>18)</sup>고 하였다. 반면에 (가)-4에서 해운포에 고읍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가)-5의 해운포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부에서 남쪽 9리에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5에서 조선전기 명종 2년(1547) 동래현에서 승격된 동래도호부에서 해운포가 남쪽 9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가)-4에서 해운포에 있는 고읍성은 1547년 이전까지 존속한 동래현의 치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동래현의 고읍성은 배산의 동남쪽인 수영구 망미동 일대로 비정되므로,<sup>19)</sup> 현재 알려진 해운대는 해운포와 위치가

1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慶尙道 東萊縣 古跡條.

17) 『東萊府誌』(1740년), 제19 關防條.

1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慶尙道 東萊縣 古跡條.

19) 동래 고읍성 터가 부산지방방무청 부지에 포함되면서 2002년 동의대학교 박물관이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토성 연장 96m와 우물 4개소가 조사되었다. 또한 포스코 더샵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이 2003년에 시굴 조사, 2005년에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판축 토성 벽 135m가 조사되었다(동의대학교 박물관, 『釜山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 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2007.) 관련 유구나 유물로 볼 때 동래고읍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형변의 위치를 비정해 보겠다. 과거 형변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0)</sup> 용당이라는 지명은 1740년에 간행된 『동래부지』에는 龍當里로 기록되어 왔으며,<sup>21)</sup>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21년(1797)의 기록에 龍塘浦라 하여 용당이라는 기록이 처음 보인다.<sup>22)</sup> 1910년경부터는 龍塘里로 마을 이름으로 기록되어 부산시 남구 용당동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sup>23)</sup>

(가)-2의 형변부곡의 위치 기록을 참조하면 동래현의 고읍성에서 거리의 규정이 없이 남쪽의 바닷가에 있다고 하였는데, 다른 지명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래현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몇 리라고 한 점과는 전혀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을 그대로 본다면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동래현의 고읍성에서 그리 멀지않은 남쪽 바닷가라고 할 수 있다. 사해의 위치에 대한 공통점을 본다면 동서남북 네 방면의 땅 끝부분에 해당하는 바다에 있다는 점이다. 망미동 부근에서 이와 같은 입지조건에 합당한 곳은 민락동에 있는 백산이다.

예로부터 백산은 동래지역의 진산으로 지역민의 신앙의 장소였다. 정상부에는 옥련선원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일명 좌수영)의 여러 수군만호영이 있었고 소백산[진조말산]의 정상부에 첨이대가 있는 등 남해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명대사와도 관련이 깊은 곳이라는 역사적

---

성의 상한은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까지 시기를 올릴 수 있으며, 1021년(현종 12) 때에 동래군성(東萊郡城)을 수축하였다는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읍성이 폐허가 된 원인은 잦은 왜구의 침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동욱, 『동래 고읍성 터』,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20) 鄭容淑, 『고려 지방제도의 정비와 부산』, 『釜山市史』 제1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529쪽.

21) 『東來府誌』(1740년) 제22 방리조.

22) 『正祖實錄』 권47, 정조 21년 9월 6일 임신조.

2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2006, 248쪽.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옥련선원의 마애지장보살좌상은 해난 구제와 수군의 귀의불로서 역사적 의의가 깊다.<sup>24)</sup> 그리고 옥련선원은 유서 깊은 고찰로서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백산사라고 이름을 정하여 910년에 최치원이 이 절에 은둔하여 참선하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렇듯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백산의 사찰은 1635년(인조 13) 승려 해운선사가 옥련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sup>25)</sup> 이렇듯 고유한 해신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의 변용과 발전은 사해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sup>26)</sup>

## 2. 형변의 성립 시기

신라의 제사제도 성립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는 신라 9주가 완비된 685년(신문왕 5) 이후부터 735년(성덕왕 34) 이전으로 보는 입장이다.<sup>27)</sup> 이에 대해 사전의 단계적 성립으로 추구하고 지증왕대에 기존의 여러 신들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화한 1차 사전(祀典), 신문왕대에 사전을 개편한 2차 사전, 선덕왕이 신라 사전을 제후의 예로 통일한 3차 사전이라는 견해도 있다.<sup>28)</sup> 그리고 신라 대·중·소사의 모든 제사는 일정한 씨족 혹은 세력의 연고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단순한 제사상의 문제를 넘어서 신라

24) 조원영, 「마애지장보살좌상」,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25) 정미숙, 「옥련선원」,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26) 송화섭, 「변산반도의 관음신앙」,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역사문화학회, 2002, 109~112쪽.

27) 井上秀雄, 「祭祀儀禮の受容」-新羅の律令制と祭祀制度-, 「古代東アジアの文化交流」, 溪水社, 1993, 84쪽 ; 노중국, 「통일기 신라의 백제고지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1, 한국고대사학회, 1988, 137쪽 ;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309쪽.

28) 辛鍾遠,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한국사학회, 1984, 39~45쪽 ; 채미하, 「신라의 四海와 四瀆」, 『대외문물교류연구』 7, 해상왕장보고연구회, 2007, 240~242쪽.



사회의 중앙집권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여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29)</sup> 이들 대·중·소사제는 왕경과 지방의 지배조직을 근거로 군현을 단위로 한 제사집단과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sup>30)</sup>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명산대천 제사가 대·중·소사에 편제된 것은 아무리 늦어도 735년 이전일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중·소사 제도의 기본은 686년(신문왕 6) 당으로부터 『吉凶要禮』를 입수한 다음 해에 오묘제가 정립된 무렵부터 ‘전사서’가 설치된 713년(성덕왕 12)경까지는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후 군현에 기반을 둔 집단의 정치적 성장에 대응하여 거기에서 봉사된 산신이 제2기 사전의 몇 차례 수정과정에서 중사 말미의 잡사 6개 산악과 같이 중사 혹은 소사에 추가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사는 본래 오악·사진·사해·사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청해진이 설치된 828년(흥덕왕 3)까지는 군현의 제사집단의 정치적 성장을 반영하여 그것이 제사하는 개개의 산신을 중사로 새롭게 편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1)</sup> 713년(성덕왕 12) 전사서가 설치되면서 대·중·소사에 대한 사전체제가 이루어진 후 신라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하나씩 보완하여 편입된 것이며, 청해진이 중사의 맨 마지막에 기재된 것을 볼 때 신라 사전은 청해진이 설치된 시기에 마지막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았다.<sup>32)</sup>

한편으로 중사에 포함되어 있는 6곳의 山·城·鎮은 중사가 신라의 동서남북 4변을 원칙으로 하고 때로는 거기에 ‘中’이 들어가기도 한 중사의 일반적인 구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소사에 들어갈

29) 辛鍾遠,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95쪽.

30) 浜田耕策,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國家』 7, 學生社, 1982, 241~242쪽.

31) 浜田耕策,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响沫集』 4, 世話人, 157쪽; 정구복 외, 『앞의 책』, 1984, 20쪽.

32) 崔光植, 『앞의 책』, 1994, 309쪽.

제사가 중사에 잘못 넣은 것으로 의문을 갖기도 한다.<sup>33)</sup>

이와 같이 말미의 6곳의 제장을 포함하는 중사의 성립 시기를 둘러싼 논점은 상당히 복잡하다. 중사 가운데 서독인 웅천하는 통일 이후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옛백제 세력을, 북독인 한산하는 진흥왕 이후 신라 영토에 편제되어 옛고구려 세력의 편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사인 삼산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왕기에 위치하고 있어 왕경을 보호하고 중사는 국토를 방호하는 것으로 소사는 각 지역을 방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4)</sup>

본고에서 추구할 사해를 포함한 중사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삼국시기에 편제되었다가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의 지배 통치를 위한 교통로의 확보와 더불어 국토의 요로와 요충지에 제장을 마련한 것으로 문무왕대에 최종 정비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35)</sup>

이제 본고에서 추구할 형변과 관련된 사해에 한정하여 신라에 편입된 시간적인 순서를 중심으로 언급해 보겠다.

첫째, 아등변과 비례산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등변은 퇴화군에 속해 있으며 비례산은 실직군에 속하는데, 이들 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것과 관련된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소국쟁강 설화가 있다. 파사왕 때에 실직국(삼척)과 음즙벌국(안강) 사이에 일어난 소국쟁강사건은 신라의 모체인 사로국이 이를 해결함으로써 진한 소국들을 복속하게 되었다.<sup>36)</sup>고 한다. 그리고 아등변과 관련하여 전하는 아달라왕 때의 ‘연오랑세오녀 설화’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도기야는 신라시대 연오랑·세오녀와 관련하여 동해바다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당시 신라왕은 제

33)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의의」, 『震檀學報』 33, 진단학회, 1972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195쪽 ; 辛鍾遠, 「앞의 논문」, 1984, 97쪽 ; 노중국, 「앞의 논문」, 1988, 132쪽.

34) 李基白, 「앞의 논문」, 1972, 195쪽 ; 崔光植, 『앞의 책』, 1994, 319쪽.

35) 金昌謙, 「앞의 논문」, 2007, 169~180쪽.

3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사에 사용한 비단을 왕실의 어고에 간직해 국보로 삼았는데, 그 비단은 세오녀의 귀한 왕비가 짜주었던 것이기에 이 창고를 귀비고라 불렀다고 한다.<sup>37)</sup>

둘째, 형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변이 속한 동래지역에는 독로국이 있었다. 독로국이 신라에 병합된 것은 언제일까? 문헌 기록상으로는 탈해왕 때에 변경관리였던 거도가 마희라는 술책을 이용하여 우시산국(울산)과 거칠산국(부산)을 정복하였다.<sup>38)</sup>고 한다. 이들 두 나라가 서기 1세기 후반 탈해왕 때에 정복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말하듯이 우시산국은 3세기 말엽에 복속하였으나, 거칠산국 즉 독로국의 복속시기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4세기 후반설,<sup>39)</sup> 5세기 초엽설,<sup>40)</sup> 5세기 후반설<sup>41)</sup> 등이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이들 편년안의 근거는 경주 황남대총 북분의 연대관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출토된 금관은 신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신라가 삼성왕실에서 통합된 왕권이 성립되는 것은 눌지왕대(417~458)에 이르러서이므로,<sup>42)</sup> 독로국은 5세기 중엽 이후에 복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로국이 신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국정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과 같이 사로국의 소국정복이 서기 1세기 후반에서 3세기 중엽까지 느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세기 말엽에서 4세기 초반 사이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sup>43)</sup> 즉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오·촉 삼국을 통일

37) 『삼국유사』 권1, 기이1 연오랑세오녀조.

38)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도전.

39) 崔秉鉉,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 -慶州 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0, 한국고고학회, 1993.

40) 李熙濬, 「낙동강 이동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定型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한일고고학공동연구회 심포지움, 1996.

41) 鄭澄元·洪漣植, 「釜山地域의 古墳文化」, -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山大史學』 18,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9.

42)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2001, 55쪽.

한 서진왕조가 동방정책을 포기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소국쟁강사건과 같이 진한 소국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던 것이며, 이를 해소한 것이 사로국의 소국정복이었다.

이후 사로국은 우시산국을 비롯한 진한의 소국들을 모두 정복하여 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 신라국가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사로국은 동해연안의 소국을 복속한 이후 소국의 제천장소 가운데 중요한 도기야(아등변)와 비례산 등을 신라국가의 지방 제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실직국의 제천장소였던 비례산도 도기야와 마찬가지로 신라국가의 지방 제장으로 삼았을 것이다.

신라가 서해의 제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550년대 한강유역을 영유한 이후였다. 진흥왕 때에 이르러 신라는 서해의 당항성을 통해 대중교류를 전개하였으나, 항해와 관련된 해양제사에 관한 기록이 없어 서해 제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즉 한강유역을 점령하여 서방의 영토를 확보하였더라도 아직 사해의 서해 제장을 설치한 것도 아니었다. 지정학적 상황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있었으므로 서해의 제장을 확보하기 어려워 동서남북 사해를 구비할 수는 없었다. 동해·북해·남해 세 곳의 제장은 사해라는 개념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중사의 사해 가운데 서해는 미릉변이다. 미릉변이 속해 있는 시산군은 686년에 주가 설치된 웅천주에 속한 것이므로, 미릉변이 사해 중의 서해로 마련된 것은 그 이후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사 가운데 오악은 687년에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이므로, 사해는 그 후에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사 가운데 잡사는 757년 이후에도 계속 마련되고 있었으므로, 사진·사해·사독과는 성립시기가 다른 것이다. 712년에 설치된 전사서는 삼산·오악이 성립된 이후의 담당 관청이므로, 사진·사해·사독도 712년 이전에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3) 宣石悅, 『斯盧國의 小國征服과 그 紀年』, 『新羅文化』 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5.

형변 등의 사해는 다른 중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라의 영토 확장과정에서 복속지역의 중심 제장을 모두 국가적 차원의 제장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신라 중앙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장만 국가제사에 편입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사해는 신라의 해양교류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인데,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남해 제장 형변의 해양교류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 Ⅲ. 신라의 해양교류와 형변

신라에 편입된 이후 부산지역은 해양교류에서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지정학적으로 부산은 쓰시마[對馬島]를 경유하여 일본열도와의 해양교류가 활발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5세기 중엽 이후 부산지역은 왜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이전 독로국이 금관가야연맹의 일원으로 있을 때와는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더욱이 신라는 국가적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여러 왕조와의 교류도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대일교류뿐 아니라 대중교류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신라시기 부산지역의 해양교류를 대중·대일 교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대중 해양교류와 형변

삼국시대 신라의 외교활동은 377년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여<sup>44)</sup>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隋가 중국 남북조를 통일하기 이전까지 12회에 불과하였다. 그 후 신라는 대중교류를 점차 활발하게 전개하여 唐에 179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이에 화답하여 당도 20여 회에 걸쳐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신라는 해양교류를

44) 『資治通鑑』 권104, 東晉紀.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정비 강화해 갔다. 삼국시대에는 전담 부서 없이 병부가 겸장하였는데, 7세기 초 603년(진평왕 5)에 선부서의 대감과 제감 각 1인을 처음 둔 것을<sup>45)</sup> 통해 전담 부서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신라는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결과로서 일련의 대외 교류과정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해 업무와 해양활동 등의 각종 지원이 있었다.

7세기 신라의 해양교류는 주로 서해와 남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서해를 통한 대중교류는 신라가 당항성을 거점으로 한 해양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서해를 통한 교류에는 다음과 같은 난항이 있었다.

- (나)-1 김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났다. 춘추의 시종인 온군해가 높은 사람이 쓰는 모자를 쓰고 귀한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배 위에 앉아 있었더니, 순라병이 그를 춘추로 여기어 잡아 죽였다. 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본국에 당도하였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여 군해를 대아찬으로 추증하고, 그 자손들에게 후하게 상을 내려주었다.<sup>46)</sup>

648년 김춘추가 당 태종과 만나 나당동맹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연안에서 고구려 수군에게 곤욕을 치렀던 사건에서 보아 서해를 통한 대중 해양교류는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라는 남해항로가 보다 중시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660년(태종 무열왕 7)에 당나라의 소정방이 산동반도의萊州에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원정할 때 신라 태자 김법민이 병선 100척을 이끌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였으며,<sup>47)</sup> 더욱이 백제 멸망 직후 663년에 백제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왜의 개신정권이 27,000여 명을 파병했으나 백강구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은 이를

4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년 춘정월조.

4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5 진덕왕 2년조.

4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및 동권 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조.

대과한 사실<sup>48)</sup>이다. 이것은 603년에 설치한 전담 부서인 선부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며, 신라의 해상활동 능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볼 때 신라 중앙의 해군이 옛백제 지역으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출동하였던 것으로서 왕도에서 남해항로를 이용하였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수용하고, 이를 융합하여 한 단계 발전시켜 정책적으로 한반도 일대의 해상을 장악해 나갔을 것이다. 나당전쟁 이후 신라는 해양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678과 688년에 선부서의 장관과 차관을 각 1인씩 추가하였는데,<sup>49)</sup> 이로써 선부서의 기능과 위상이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통일신라는 이전보다 대중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공식 사절인 신라의 견당사는 모두 179회나 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단순히 견당사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 사절이 어떠한 항로를 선택하여 신라에서 당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비문 등 당시의 기록을 통해 보면 入淮南使·入浙使·平盧使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선종 승려들의 비문 가운데 입당구법을 위한 항로가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나말여초의 선사 법경대사가 908년(천우 5)에 당에서 신라 무주의 회진으로 돌아왔다<sup>50)</sup>고 하며, 진철대사 이엄이 911년(천우 8)에 이르러 회진에 도달하였다가 김해까지 이르게 되자 마침 김해부지군부사 소율희의 귀의를 받게 되었다<sup>51)</sup>고 하며, 원종대사 찬유가 때 마침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나 타고 721년(정명 7) 7월 강주의 덕안포에 도달하여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봉림(창원시 봉림동)으

48) 『日本書紀』 권27, 天智紀 2년 8월조.

49)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8년조 및 동권 8, 신문왕 8년조.

50) 許興植,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亞細亞文化社, 1984, 166쪽.

51) 李智冠, 『海州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伽山文庫, 1994, 142쪽.

로 가서 진경대사에게 귀국인사를 드렸다<sup>52)</sup>고 한다.

여기서 볼 때 신라의 대중교류 항로는 크게 북로와 남로로 대별된다. 견당사의 경우 북로나 남로 가운데 한 항로를 선택하여 대중교류를 전개한 반면에, 선종 승려는 주로 남로를 선택하여 입당구법을 행하고 있었다. 이들 두 가지 항로 가운데 남로는 선승들은 중국에서 서남해안의 회진을 거쳐 남해안의 덕안포와 김해·창원지역으로 이동한 경로였으며, 김해 등의 남해연안지역이 중국과 해상교류를 전개할 수 있는 직항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강주 덕안포의 위치가 김해와 연접한 남해나 하동·사천 가운데 한 곳에 위치한 포구라고 한다면,<sup>53)</sup> 국가적 차원에서의 견당사나 민간 차원에서의 대중교류 항로는 여전히 왕도를 출발하여 부산에서 남해안을 거쳐 서남해안에서 서해남부를 건너는 남로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로는 왕도-울산항-부산 형변-남해안-서남해안-서해남부-중국의 항로로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기록에서는 출발점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었다.

(나)-2 우정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처자를 데리고 황산진 어구로 달아나 배를 타고 청해진대사 궁복에게 가서 의지하였다.<sup>54)</sup>

위 기록은 836년 말에 흥덕왕이 후사가 없이 흥거하자 흥덕왕의 종제 균정과 다른 종제 헌정의 아들 제룡이 왕위를 노리고 내란이 일어나 제룡이 균정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균정의 아들 우정이 황산진으로부터 청해진으로 피신하게 되었음을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황산

52) 李智冠, 『驪州高達院元宗大師惠眞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伽山文庫, 1995, 167쪽.

53) 이현모, 『羅末麗初 晋州地域의 豪族과 그 동향』, 『歷史教育論集』 30, 역사교육학회, 2003, 134쪽.

54)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희강왕 2(837)년 5월조.



진은 양산 물금에 위치하는데, 바로 낙동강 하구이다.<sup>55)</sup> 후일의 신무왕인 김우징이 신라 왕경에서 청해진으로 피신한 사실에서 보아 신라 통일기에도 왕경 즉 왕도에서 양산지구대를 따라 물금의 황산진까지 육로로 와서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해로로 서남해안의 완도 청해진까지 왕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도-양산지구대-황산진-남해안의 항로는 왕도-울산항-부산 형변-남해안의 항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전자의 항로는 정변에 실패하여 급히 피신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항로가 아니었다. 특히 황산진은 황산하라는 사독 중의 남독이 있는 곳으로서 낙동강연안의 교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sup>56)</sup> 해양교류 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중교류 상의 정상적인 항로는 후자라고 보아야 하겠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일본 사절인 紀三進 사건<sup>57)</sup>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이 7세기 전반 이후 일본의 견당사도 남로를 통해 중국으로 갔던 점도 참조된다. 일본은 견당사를 보낸 이후에 따로 견신라사를 파견하여 그 사실을 알리거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다. 일본은 협조가 필요한 신라로 들어갈 경우 신라 9주의 하나인 청주(강주) 관할지역으로 들어갔다던, 바로 부산에 도착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 또한 부산과 남해안이 대중교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세기 초반 장보고는 신라 서남해안의 도서 출신으로 중국 唐에서

55) 오늘날의 勿禁이라는 지명은 한자식이 아니라 이두식 명칭이다. 신라 토기 가운데 ‘井勿’이라고 새겨진 명문토기가 있는데, 井勿은 우물물이라는 뜻이므로(선석열, 『가야의 금석문』, 『시민을 위한 가야사』, 집문당, 312~313쪽), 물금이란 물(勿)의 금(禁) 즉 바닷물과 민물의 경계선이라는 의미이다.

56)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구한 논고는 다음의 것이 참고된다.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35~75쪽.

57) 『續日本後紀』 권5, 仁明紀 승화 3(836)년조.

해상활동을 행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장보고는 서남해안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해안을 통해 일본과도 해상교류를 행하였다. 예를 들면, 840년에 장보고의 해상선단이 일본 규슈의 다자이후[大宰府]에 도착하자 일본은 이들이 신라에 요청한 선박을 가져온 자들이 아님을 알고 바친 토산물을 거부하여 돌려주고 추방한 사건이 있었다.<sup>58)</sup>

당시 일본 정부는 신라와 공식적인 사행무역 이외의 사무역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으므로<sup>59)</sup> 그 선단을 추방하였지만, 대재부에 도착한 장보고선단의 당나라 물품을 탈취한 사건을 통해 보면 장보고가 공무역 이외에 일본의 여러 지역과의 사무역은 남해안을 통해 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sup>60)</sup>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신라의 해양교류는 북로에 못지않게 남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남로 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 사해 가운데 하나인 형변이다. 신라가 남로를 통한 해양교류를 전개할 때 왕도의 외항인 울산항에서 출발하여 먼저 이르는 곳이 형변이다. 형변은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으로서 해류의 변화가 심한 곳이다. 선박들은 형변에 도착한 후에 해양제사를 지내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한 다음, 남해항로를 따라 서해를 건너 중국연안에 도착하였다.

청해진의 설치 목적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9세기 이후 해적이 자주 출몰하여 약탈을 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는데, 신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였을 것이다. 중사에 포함된 잡사 가운데 청해진의 설치도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국가는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교류상의 여러 요충지에 형변을 비롯한 해양 제장을 설치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58) 『續日本後紀』 권9, 仁明紀 승화 7(840)년조.

59) 『續日本後紀』 권11, 仁明紀 승화 9(842)년조.

60) 전기웅,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研究」, 『韓國民族文化』 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11쪽.

## 2. 대일 해양교류와 형변

4세기 이후 기나이[畿内]의 대화정권으로 대표되는 일본 열도의 왜 왕권은 신라, 고구려, 중국대륙의 어떤 왕조와도 통교를 단절한 채 120여 년 동안 백제만의 일국 외교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왜는 신라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5세기 후반 신라는 남쪽 변경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부산지역에 두 성을 쌓았고, 493년에는 이들을 군진으로 개편하였다. 6세기 이후 왜는 신라의 변경으로 침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들 군진의 군사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다.<sup>61)</sup>

7세기 전반에 이르러 신라와 왜 양국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왜의 일관된 입장은 선진문물의 수입을 통한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대중외교가 소홀한 백제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다각적 외교로 전환하였다.

그 중에서도 왜가 주목한 것은 신라였는데, 왜는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옛가야지역인 경남 남해안을 지나가야 했는데, 적대국인 신라가 6세기 중엽 이후 가야를 병합하여 남해안을 장악하고 있어 대외항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 신라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고구려·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왜와 국교를 개선하여 친선관계를 도모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송사외교를 통한 친선관계가 성사되었으며, 647년 김춘추의 도왜로 상호평화가 보장되었다.<sup>62)</sup>

그러나 왜는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정벌하여 멸망케 하자 태도는 일변하여 663년 백강구전투가 일어났다. 당시 왜국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백제적인 요소가 백제 구원의 분위기와 여기에 일종의 국가동원령을 통한 권력의 집중 도모, 그리고 대외적 상황을 내부적 모순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왜왕권의 내부적

61) 선석열,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발전』, 『항도부산』 2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123~128쪽.

62) 연민수, 『7世紀 동아시아 情勢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48~52쪽.

요인 등이 합쳐져 결국 출병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다.<sup>63)</sup> 왜와 백강구에서 전투를 벌였던 이후 신라는 한동안 대립적으로 전개되었다가, 668년 김동암을 일본 사신으로 파견함으로써 공적 교류를 재개하였다.

이후 공식적인 사신을 파견한 마지막 해인 779년(혜공왕 15)까지 신라는 일본에 46회 사신을 파견하였고, 일본은 신라에 27회 사신을 파견하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태-1) 大宰府가 아뢰기를 “신라 왕자 韓阿滄 金泰廉과 貢調使 大使 金暄, 送王子使 金弼言 등 700여 명이 배 7척에 타고 왔다”고 하였다.<sup>64)</sup>

(태-2) 일본국 사신이 내조하니 총 204명이었다.<sup>65)</sup>

(태-3) 領客府는 본래 이름이 倭典이었는데, 진평왕 43년(621)에 領客典 [세주 : 뒤에 또 倭典을 따로 두었다]으로 고쳤다.<sup>66)</sup>

(태-4) [우리 일본의] 遣唐使의 배가 바람과 파도의 급변으로 혹시 신라 땅에 漂着할까 걱정이 되어 太政官에서 저쪽 나라 신라의 집사 성에 牒文을 보내어 먼저 그 사실을 알렸다. …… 이리하여 武藏權大掾 紀三津을 보내어 사신으로 삼아 첩문을 가지고 보내었다. …… 12월 정유일에 신라국에 보낸 사신 紀三津이 복명하였다. 紀三津은 자신이 사신으로 간 취지를 잃어버렸으므로 신라에서 誣告를 당하고 쫓겨 돌아왔던 것이다. …… 일은 모름지기 太政官에 첩문을 보내고 아울러 靑州에 첩문을 내려 사안을 헤아려 바다를 건너는 동안, 그들에게 양식을 지급하여 본국으로 돌려보 내니 처분하시오.<sup>67)</sup>

63) 연민수, 『改新政權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 『日本歷史研究』 6, 일본사학회, 1997 ;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482~486쪽.

64) 『續日本紀』 권18, 孝謙紀 4년 3월조.

65) 『삼국사기』 권8, 성덕왕 2년조.

66) 『삼국사기』 권38, 지7, 직관 상, 영객부.

67) 『續日本後紀』 권5, 仁明紀 승화 3(836)년 윤5월조.

(태-1)에서 752년 김태렴 등 70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탄 배가 7척으로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산술적으로 1척당 100여명을 싣고 대한해협을 건너간 셈이 되는데, 당시 일본에서도 신라 선박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신라는 선부서의 관직체계를 중설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항해술의 비약적 발전과 대외무역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술의 발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가 삼국통일 전쟁을 겪는 와중에 정책적으로 크게 장려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조치로 이해된다.

(태-2)에서는 703년 신라에 파견한 일본국 사절단이 204명이나 되었던 사실에서 왜의 대신라 외교정책도 적극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신라 사신 김복호와 김효원 등이 일본에 와서 신라국왕 즉 효소왕의 상을 알렸다고 하므로,<sup>68)</sup> (태-2)의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일본 사신은 신라의 고애사에 대한 조문사로서 답하고자 신라에 왔던 것이다.<sup>69)</sup> 그 이전에도 687년(신문왕 7)에 일본은 국왕 덴무[天武]의 상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바<sup>70)</sup> 있고, 700년(효소왕 9)에는 신라에서 왕의 모친상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기도<sup>71)</sup> 하였다. 양국이 서로 왕실의 경조사에 대해 조문을 할 정도로 왕권을 상호 존중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태-3)과 같이 8세기에 접어들면서 양국은 국내적으로 안정되면서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일외교가 활성화되자 신라 성덕왕은 영객부 외에 따로 왜전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sup>72)</sup> 703년 204명의 대규모 사신이 방문하는 등 공적 교류가 우호적인 방

68) 『續日本紀』 권3, 文武紀 대보 3년 정월조.

69) 정구복 외, 『앞의 책』, 261쪽.

70) 『일본서기』 권30, 持統天皇 元年 1월 19일.

71) 『속일본기』 권1, 文武天皇 4년 11월 8일.

72) 그 후에 별치된 왜전은 대외교역 등에 의한 제품생산과 수취를 목적으로 한 관청으로 보이며 시기는 성덕왕대로 추정하고 있다(정구복 외, 『앞의 책』, 487쪽).

향으로 전개되어 견일본사 및 견신라사가 각각 10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당시 양국 사절의 체재 기간을 비교해 보면 신라의 견일본사는 평균 2~3개월이며, 일본의 견신라사는 7~10개월로서 공적인 업무 이외 5개월 정도 더 체재하여 일본 사절이 신라의 문물을 직접 보고 배우는 일 이외에도 각종 수공업에 대한 견학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73)</sup>

당시 일본은 3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견당사도 부활하여 직접 교류를 재개하는 등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교류 및 교역에 힘썼다. (4)-4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이 7세기 전반 이후 당에 견당사를 보낼 때 견당사를 보낸 이후에 따로 견신라사를 파견하여 그 사실을 알리거나, 견당사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도 또한 견신라사를 보내어 그 상황을 문의하였던 것 중의 하나이다.

양국의 관계는 7세기 말엽부터 698년 일본국 사신이 내조하였으므로 왕이 직접 송례전에서 인견하여<sup>74)</sup> 우의를 도모해왔으나, 8세기 중엽 경덕왕대에 이르면 신라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742년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sup>75)</sup> 753년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는데, 오만하고 예의가 없었으므로 왕이 그들을 접견하지 않자 마침내 돌아갔다.<sup>76)</sup> 여기에 8세기 중반에 이르러 양국간의 외교형식을 두고 갈등관계가 발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상호간의 인식문제가 깊게 깔려 있었다. 신라는 스스로를 대국으로 인식하고 일본을 조공국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신라번국관 즉 신라를 조공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역 문물을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신라를 통해 수입하였다. 당시 공적 교류의 시기는 7세기 후반과

73) 연민수,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41~45쪽.

74)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7년조.

75)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원년조.

76)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2년조.

8세기 전반까지에 집중되었고, 광물, 짐승, 고급 견직물류 등의 다양한 물품이 교역되었다. 신라는 고급 견직물류를 보낸 반면 일본은 신라에 거친 견직물을 보내고 있다.<sup>77)</sup> 이처럼 양국의 공적 교류는 비록 기록이 소략하지만, 8세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8세기 들어 국가 차원의 교역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성덕왕 12년 唐이 성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함으로써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즉 나당전쟁 이후 소원했던 나당관계가 회복되었으며, 733년에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략하고,<sup>78)</sup> 735년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패강 이남지역을 신라가 확보함으로써<sup>79)</sup> 당나라와의 군사적 긴장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국가 공무역도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역·남해산 물품이 신라로 유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대외 교역량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무역도 점차 신라 국산품으로 한정하고 상품가치가 높은 외국산품은 교역의 대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사절단이 가져 온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귀족들이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으로, 신라 사절이 가지고 간 물품에 붙어 있던 『첩포기』와 같은 일종의 물품소개서로 추론되고<sup>80)</sup> 있다.

8세기 중반 외교형식을 두고 양국은 갈등관계에 있었으나<sup>81)</sup> 신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형식을 무시하고 사행의 중요 목적을 통상에 두

77) 이종봉,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3, 232~233쪽.

78)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2년조.

7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4년조.

80)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외교역과 ‘바이시라시모뜨게」,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56쪽.

81) 일본은 701년 大寶律令을 반포하면서,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국내적으로는 천황 중심의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자국 중심의 차별적 국제질서를 지향하게 되었다. 김창석, 「앞의 논문」 참조.

고 계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다.<sup>82)</sup> 신라가 일본에 보낸 물품 중에는 증여품도 있지만, 교역품도 일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당시 교역 형태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752년 신라사절단 김태렴 일행의 일본 방문이 도다이 지[東大寺] 노사나대불개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sup>83)</sup>으로 본다면, 8세기 양국의 문화교류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통천황 6년에 무광사로 제수된 야마다노 후비토미 카타[山田史御形]이 승려일 때 신라에서 학문을 배웠고,<sup>84)</sup> 의법·의기·정달<sup>85)</sup> 등 일본의 많은 승려들이 신라에서 학문을 배우고 돌아가기도 하였던 사실에서<sup>86)</sup> 신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불교문화도 수시로 입수한 것이다.

(㉔)-4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외부 선진지역의 새로운 문물을 입수하거나 해상교류를 전개할 때 항상 한반도의 고대국가들의 협력을 얻어 수행할 수 있었다. 6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가야 제국의 중개로 해상교류가 가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신라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나, 7세기 초반 이전까지는 신라와 적대관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없었고 해양교류는 백제의 중개에 의해 겨우 이루어졌다.

(㉔)-4의 기록을 통해 보면 외교문서상으로는<sup>87)</sup>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하여 해양교류를 수행할 때 신라는 그들을 동남쪽의 수도 경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남쪽의 靑州로 오게 하였다. 이는 일

82) 김은숙,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국사관논총』 29, 1991, 106쪽.

83) 김지은, 「고대 香藥의 유통과 불교의례」, 『慶州史學』 37, 경주사학회, 2013, 28~32쪽.

84) 『日本書紀』 권30, 持統紀 6년 10월조.

85) 『續日本紀』 권3, 文武紀 4년 5월조.

86) 당시 일본의 학문승에 대해서는 石田瑞麿, 이영자 옮김, 『일본불교사』, 민족사, 1995, 94쪽 참조.

87) 신라 외교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은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梁正錫, 「新羅 公式令의 王命文書樣式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15, 한국고대사학회, 1999.



본사절단에서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한정된 조치일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해양교류는 부산지역을 비롯하여 남해안을 경유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이 해양교류를 행하는 교통로는 야마토에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거쳐 일단 규슈의 다자이후에 이르며, 이어 바다를 건너 이키-쓰시마를 거쳐 부산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신라 수도로 들어가거나 남해안을 통해 서해안으로 가서 연안항로를 타고 황해를 돌아 중국 唐으로 가는 것이 일본 건당사의 해양교류통로이다. 일본은 협조가 필요한 신라로 들어갈 경우 신라 9주의 하나인 청주(靑州) 관할지역으로 들어갔더라도 일단 부산에 먼저 도착했을 것은 자명하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의 해양교류에 대해 부산 형변과 연관지어 추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겠다.

첫째, 신라 중사인 사해의 하나인 남해 형변의 위치와 성립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형변의 위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어의 상 유사한 부산시 남구 용당에 비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의 내용과 사해의 입지조건을 유념해 보면 망미동의 고읍성의 남쪽 해안으로 되어 있어 그 부근의 바닷가로서 바다의 조망에 유리한 민락동 백산일대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사해가 성립된 시기는 해당 군현의 명칭의 상하한 즉 505년부터 757년의 기간을 고려한 위에 전담부서인 전사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712년 직후에 사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성덕왕 때에 대중·대일의 해양교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도 부합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둘째, 형변을 통한 신라의 해양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 唐이며, 왕도에서 출발하여 해양을 통해 나아가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인 부산 형변

이었다. 먼저 신라와 당의 해양교류루트는 북로와 남로 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로는 왕도-울산항-부산 형변-남해안-서남해안-서해남부-중국의 항로였다. 이 루트는 일본의 견당사도 신라의 협조를 받아 중국으로 가기도 하였다. 다음 신라의 대왜 교통로는 경주-울산-기장-형변-대마도-이키-하카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이용되었다. 이후의 항로는 한려수도와 같이 안전한 세토나йка이를 따라 야마토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라는 대중·대일의 해양교류를 통해 외교활동과 문물교류를 행하였으며,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교류 상의 여러 요충지에 형변을 비롯한 해양 제장을 설치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東萊府誌』

『日本書紀』

『續日本紀』

『日本後紀』

『續日本後紀』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 2. 논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2006.

-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2001.
- 辛鍾遠,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 李丙燾, 『국역 삼국사기』(개정판), 을유문화사, 1997.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伽山文庫, 1994.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일지사, 1994.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 石田瑞麿, 이영자 옮김, 『일본불교사』, 민족사, 1995.

### 3. 논문

- 김은숙,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국사관논총』 29, 국사편찬위원회, 1991.
- 김지은, 「고대 香藥의 유통과 불교의례」, 『慶州史學』 37, 경주사학회, 2013.
- 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韓國古代史研究』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 김창석, 「통일신라의 천하관과 대일(對日) 인식」,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2005.
- 노중국, 「통일기 신라의 백제고지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1, 한국고대사학회, 1988.
- 宣石悅, 「斯盧國의 小國征服과 그 紀年」, 『新羅文化』 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5.
- 선석열, 「가야의 금석문」, 『시민을 위한 가야사』, 집문당, 1996.
- 선석열,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반전」, 『항도 부산』 2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 송화섭, 「변산반도의 관음신앙」,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역사문

- 화학회, 2002.
- 辛鍾遠,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한국사학회, 1984.
- 梁正錫, 『新羅 公式令의 王命文書樣式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15, 한국고대사학회, 1999.
- 연민수, 『改新政權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 『日本歷史研究』 6, 일본사학회, 1997.
-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情勢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시모뜨게’』,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의의』, 『震檀學報』 33, 진단학회, 1972.
- 이종봉,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3.
- 이현모, 『羅末麗初 晋州地域의 豪族과 그 동향』, 『歷史教育論集』 30, 역사교육학회, 2003.
- 李熙濬, 『낙동강 이동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定型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한일고고학공동연구회 심포지움, 1996.
- 전기웅,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研究』, 『韓國民族文化』 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 鄭容淑, 『고려 지방제도의 정비와 부산』, 『釜山市史』 제1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 鄭澄元·洪濟植, 『釜山地域의 古墳文化』 -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부대사학회, 1989..
- 채미하, 『신라의 四海와 四瀆』, 『대의문물교류연구』 7, 해상왕장보고연구회, 2007.
- 崔秉鉉,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 -慶州 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

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0, 한국고고학회, 1993.

홍영호, 『실직의 고고자료와 신라사적 의미』, 『이사부와 동해』 9, 한국이사부학회, 2015.

浜田耕策,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國家』 7, 學生社, 1982.

浜田耕策,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响沫集』 4, 世話人, 1984.

井上秀雄, 『祭祀儀禮の受容』-新羅の律令制と祭祀制度-, 『古代東アジアの文化交流』, 溪水社, 1993.

4. 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2007.

동의대학교 박물관, 『釜山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015.9.29	2015.11.4	2015.11.16

【Abstract】

**Busan of the sea-interchanges in Silla and  
Hyeongbyeon(兄邊)**

Seon, Seok-yeol\*

This essay is researched Silla of the sea-interchanges in relation to Hyeongbyeon in Busan.

The first question is the location of Hyeongbyeon as one of Sahae. According to records of Hyeongbyeon, it is written that the south coast of Dongnae's old castle.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Dongnae was located at the Mangmi-dong in Silla Period. Therefore Hyeongbyeon is located around Mt. Baek in Millak-dong.

The second question is establishment of the Sahae system. These were established around that time because Jeonsaseo(典祀署) as priest organization was installed at 712. At that time, King Seongdeok was actively carried out Policy toward Tang and ancient Japan. Two facts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 subject of sea-interchanges were Tang and ancient Japan. When the mission set off in the capital of Silla and into the ocean, they had to go through Hyeongbyeon in Busan. They Hyeongbyeon because is at a fork in the South Sea and the East Sea. They held marine priest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The sea road from Silla to China was two ways in the South and North. South by sea among them was capital of Silla-Ulsan harbor-Hyeongbyeon-the South Sea-The south-west of the sea-Tang. Japan was able to go to Tang with the help of Silla. The sea road from Silla to Japan

---

\* Pusan National Universit

was capital of Silla-Ulsan harbor-Hyeongbyeon-Tsushima-Iki-Hakata-Setonaikai- Kinki(capital of Japan). Silla was in negotiations with Tang, is accepted advanced culture through the voyage. Hyeongbyeon was in these negotiations.

\* key words : Silla, joongsa, Hyeongbyeon, east-south sea,  
sea-interchanges, sea-gods prayers, safe navigation